

# 세종시 로컬푸드의 우수성 소비자가 인정했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0.11.03 13:01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



세종시의 로컬푸드가 정부와 소비자들이 평가한 로컬푸드 지수 측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싱싱장터 1호점인 도담점 내부 모습[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의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한 노력이 정부와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세종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고 소비자 시민모임이 전국 159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로컬푸드 지수 측정 평가' 즉, ▲로컬푸드 생산·소비 체계 ▲지역경제 활성화 ▲먹거리 거버넌스 등 3개 분야의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측정한 로컬푸드 지수는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활성화 노력과 확산정도를 계량화된 수치로 환산해 측정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평가에서 세종시는 지난 2014년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이 이미 전국의 로컬푸드 운동을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 서 있고, 싱싱장터 1호점 개장 이후 5년 만인 지난 8월 11일 누적매출 1,000억 원의 금자탑을 쌓았으며, 지난달 5일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해 관내 학교 135곳과 세종정부청사 구내식당에 로컬푸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점등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문호 로컬푸드과장은 “이번 로컬푸드 지수 우수지자체 선정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과 지역농산물을 애정을 가지고 구매해준 세종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세종형 로컬푸드 가치를 확산시켜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용준 기자